



하림 정음공장, 정음시에 따뜻한 온기 전달

〈취하림 정음공장(대표 정호석)이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희망을 전하고 있다. 지난 24일 하림 임직원들은 정음시장에인복지관과 북면사무소에 각각 15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하림 정음공장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으며 2013년부터 이어온 이웃돕기 성금 모금 전통의 연장선에서 준비됐다. 정호석 대표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우리의 이웃 모두가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여 서로 돕고 보살피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림은 장애인복지뿐만 아니라 정음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음=김대환 기자



무주군, '농촌 크리에이티브' 시상금 전액 고향사랑기부

무주군이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12.11.)되면서 받은 시상금 3백만 원 전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탁했다. (사)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 신승철 회장은 "지방소멸 위기와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추진한 공모에서 무주군 특색을 잘 살린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우수지자체 선정이라는 결실을 거두게 됐다"라며 "시상금이 무주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농촌 관광 활성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년 농촌 크리에이티브 공모사업'에도 선정된 무주군은 농촌 관광상품의 고도화를 목표로 농촌 관광의 매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기공사 전복지회, 희망2025나눔캠페인 동참

남원시는 지난 24일,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복지회(회장 이재수)에서 희망2025나눔캠페인을 맞아 성금 3백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회는 1960년 설립된 단체로, 전북도 내 전기공사업체를 대표해 기술 향상, 산업 발전,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수 회장은 "이번 성금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충동,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 행정 지속 추진

남원시 동충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차남)는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일 1가구 소통 행정은 동장이 매일 가정을 방문해 행정사항지도를 해소하는 것으로, 2024년 상·하반기에 걸쳐 92가구를 방문하고, 총 233건의 서비스를 연계하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특히 남원사회복지관과 협약 '우리 마을 볼보단'을 운영해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발굴하고, 생필품 지원,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환자들 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전주21세기병원, 그레이스현악 4중주와 함께하는 음악회 성료

전주21세기병원(병원장 최철)은 지난 24일 병원 로비에서 그레이스현악 4중주단(육근환 등 6명)을 초청하여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가졌다. 이날 음악회는 연말을 맞아 병원 종사자들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클래식 선율이 병원 곳곳을 가득 채우며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그레이스현악4중주의 아름다운 연주는 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잠시나마 병마와의 싸움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특히, 노래와 함께한 캐럴곡은 환자들에게 따뜻한 성탄절 분위기를 선사하며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전주21세기병원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단순한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병원으로, 최철 병원장은 "환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자 이번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 최철 병원장은 "환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자 이번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김제시, 연말 맞아 ‘사랑의 연탄배달’로 온정 나눔 실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후)과 NH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조원석)가 연말을 맞아 기탁한 기부금으로 관내 저소득 가정 19세대에 총 3,800장(323만 원 상당)의 연탄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8일 정성주 김제시장과 오정후 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10여 명이 요촌동의 한 저소득 가정을 직접 방문해 연탄을 배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오정후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연탄 나눔 봉사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협력해 이러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원석 NH농협 김제시지부장은 "연탄의 온기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앞장서준 공무원노동조합과 NH농협 김제시지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김제시에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 모든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공무원노동조합과 NH농협 김제시지부는 매년 연탄 기부와 배달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올해도 변함없이 이어진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공무원노동조합과 NH농협 김제시지부는 매년 연탄 기부와 배달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올해도 변함없이 이어진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수와진 사랑더하기, 김제지평선축제로 맺은 인연 8년 연속 이어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4일 (사)수와진 사랑더하기가 2024 사랑더하기 산타클로스 선물 후원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전하며 고금 겨울 이불 100채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평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능기부를 통해 전국을 돌며 거리 공연과 버스킹을 통한 자선 모금 활동으로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는 수와진은 지난 2017년부터 김제지평선축제장에서 무료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을 기부하며 김제시에 따뜻한 마음을 더해주고 있다. 올해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동안 직접 벽골제 행사장을 찾아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을 비롯한 시민들을 만나며 현장 공연을 실시했다. 이렇게 김제지평선축제로 인연으로 시작된 (사)수와진 사랑더하기는 매년 연말에 따뜻한 도움 손길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로 8년 연속 지속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김제시민을 잊지 않고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수와진의 아름다운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점점 추워지



고 있는 시기지만 김제시와 소중한 인연을 잊지 않고 매년 함께 해주시는 수와진의 동행에 김제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사)수와진의 사랑더하기에서 기증한 이불은 읍면동 맞춤형 복지담당자가 직접 가정 방문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찬빛태권도 김찬울 원장, 진안사랑 장학금 기탁

진안군 진안읍 찬빛태권도 김찬울 원장은 28일 진안사랑 장학재단(이사장 전준성)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진안읍에서 나고 자란 김 원장은 "우리 도장 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도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준성 이사장은 "지역의 청년이자 사업가인 김찬울 원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나눔이 지역 사회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읍에 위치한 찬빛태권도장은 예·시·예·종(예의로 시작해서 예의로 끝난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아이들의 예의 교육을 지도하고 있다. /진안=유태만 기자



남원지봉센터, 온기나눔캠페인 주간 맞아 활동 전개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4일, 온기나눔 캠페인 주간을 맞아 지역사회에 온기를 나누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 남원시민경찰연합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 전북지부 남원지회 및 남원시자율방범연합회 소속 22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뜻을 모았으며, 캠페인에서는 △전통시장 안전 홍보 △교통신호 수칙 안내 △화재 예방 △연말연시 안전 문화 확산 등을 홍보했다. 특히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소화기! 우리집 화재예방 백신! 등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재성, 남원시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부

남원시는 (주)재성(대표 안광섭)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이웃돕기 성금 5백만원을 24일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재성은 1992년 창립해 각종 기능성 접착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2011년에 경기도에서 남원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최신설비와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 진출해 매출 신장을 이룬 중소기업이다. (주)재성은 2014년부터 남원시를 위한 기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 성금뿐만 아니라 현물 기부와 연탄 나눔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왔다. 특히, (주)재성은 올해로 3년째 자비로 연탄 3,000장을 전주 연탄은행을 통해 남원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등에 직원들과 함께 직접 배달 봉사를 진행해 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에스엠 문성군 대표, 2년 연속 김제시에 고향사랑 기부

김제시는 에스엠산업 문성군 대표가 지난해 200만원 고향사랑기부에 이어 올해는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문성군 대표는 백산면 지평선 산업단지 내 모터, 펌프, 수문밸브처리장치 등 유압기기 제조기업인 에스엠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특히 등록된 에스엠산업의 펌프 제작 기술로 각종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에 사용되는 중대형 수중모터펌프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석정마을에 방한용품 전달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는 지난 24일, 남원시 석정마을을방문해 방한용품 전달을 위한 방한용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 춘향골농협(조합장 김영규)과 석정·금정마을 주민 1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석 지부장은 "이번 방한용품 전달을 통해 남원지역의 구석구석에 온기가 퍼지고,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명의 기부천사, 남원 아영면에 컵라면 등 전달

남원시 아영면 관계자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익명의 기부천사로부터 면 행정복지센터에 컵라면 100박스(30개입, 300만원상당)와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쪽지가 24일 전달됐다고 28일 밝혔다. 나눔에 동참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아영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63-620-4090)에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영면 아영면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기부에 동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익명의 기부천사께서 건네주시는 온정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